

유성죽공예

1: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?

2: 내가 62세

1: 그러면 이 대나무 산업의 종사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?

2: 40년

1: 그러면 이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?

2: 대표지

1: 전체적으로

2: 근데 인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뭐 동생하고 같이 하는 거라 어차피 공예니까 뭐 대량 생산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공업으로 해가지고 공예품을 만들어낸 거라서 인원이 많이 있을 수가 없지

1: 그러면 이 기업의 참여 형태는 공예 쪽인가요?

2: 대나무 공예

1: 네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서 원자재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조달받고 계십니까?

2: 담양 관내에서 이렇게 그 뭐야 저기 중간 도매 해서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간벌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조달을 할 수가 있고

1: 보통은 국내산이고

2: 다 국내산이지 이제 좀 부족하다 없다 하면은 이제 경상도 쪽에서 조금 올 수도 있어.

1: 아예 수입산은 없는거죠

2: 수입산은 아예 쓸 수가 없고 수입은 또 대가 또 여기서 마르면 안 되고

1: 유통과정에서 마르니까

2: 그렇지 유통 오는 과정에 막 대가 이렇게 그냥 변화가 와가지고 그냥 터져버린다든가 그냥 뭐 썩는다든가 그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나무는 그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그러는 가까운 위치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베어가지고 여기 오는 도중에 뭐야 이 썩어버릴 수도 있어 대나무가

1: 그럼 수입을 하게 되었을때 비용적인 문제는 없습니까?

2: 우리는 그 수입이라는 자체를 생각 해보지를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니까

1: 알겠습니다. 그러면 원자재 조달 및 관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?

2: 있지 이제 저장을 아무래도 내가 이제 방금 말했던게 뭐야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중간 단계인데 아무래도 이게 변화도 있고 쪼개질 수도 있고 곰팡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저장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좀 있죠.

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을 벼 추수하고 단풍 지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뭐야 그 대를 채취를 해가지고 저장하는 방법. 대나무에서 물이 내렸을 때

나무에서 물이 짝 내렸을 때 그때 이제 그 베어가지고 그놈을 이제 저장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기가 없으니까 오래 가고 뭐 좀도 덜 먹고

1: 그럼 이런 저장하는 데 있는 어려움이 국가 전체의 대나무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십니까?

2: 저장성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좀 바로바로. 그 나무는 오래 될수록 좋지만 대나무는 너무 오래 뒤버리면 안 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도 많고 피해가 많죠.

오래 놔두면. 어떻게 보면은 뭐 1년 안에 거의 1년 안에 소비를 시켜야 하니까

1: 저장하고 베어왔을 때 1년안에요

2: 1년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좀이 먹어. 벌레에서 벌레가 나무에서 벌레가 먹어 벌레가 그냥 막 그 나무를 갉아먹는다고. 그거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좀 먹는다고 그러는데. 그런 것 때문에. 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기를 놓쳤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뭐 한 4월달이나 한 5월달 넘어서 이제 베어버리면은 이제 모든 마음으로 물을 그 나무들은 생물들은 모든 걸 이제 물을 이제 끌어 올리거든 이제 지게 이제 꽃이나 이제 이파리를 이제 피우려고 그때 이제 베어버리면은 이제 뭐 좀도 잘 먹고 곰팡이도 잘 나고 습이 생겨서 나무에

1: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?

2: 생산 관리 과정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냐 이렇게 놔뒀다가 주문이 오면은 이제 바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.

2: 따로 관리하는게 없고 그냥

1: 관리는 관리는 없죠. 이제 완성품 되면은 포장해가지고 놔뒀다가 바로 이제 제품이 만들어

진것들은 다 건조가 된 것들이에요.

완전히 이제 완성이 된 거라 이제 지금 시간이 좀 지나도 이제 뭐 곰팡이도 덜 먹고 좀도 덜 먹고. 뭐 전혀 안 먹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늦춰지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

1: 그러면 최종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유통 채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?

2: 지금 여기 대나무 예전에는 대나무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경쟁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다 이제 안 하고 연세도 많으시고 누가 또 그거 받아서 이어받아서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다가 그냥 막 뭐 팔려고 애를 쓴다든가 그런 것이 지금 없어도 그냥 만들면 만드는 쪽으로 나가니까 몇 사람 되지도 않으니까

1: 그러면 온라인이나 이런 거 이용하시고 계십니까?

2: 만드는 사람이 그것까지 언지 신경을 못 쓰겠더라고요.

그거 그거 뭐냐 컴퓨터 앞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느니 물건을 하나 더 만들어야지 손이 떨어져 안 되는데 그거 만들고 온라인 하고 있으면 제품을 못 만들잖아 제품을 누가 만들어

1: 그러면 직접 판매로

2: 직접 판매한건 아니고 이제 각 상인들이 전화문의가 오면은 바로 이제 판매하는거죠

1: 알겠습니다. 그러면 대나무 마케팅 및 홍보 활동에 활용하고 계신게 있습니까?

2: 거의 없다고 봐야죠.

1: 그럼 거의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 같은것 보다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 연결된 상인들에게 납품하는 위주로 판매하시는거죠.

2: 네

1: 그러면 제품 판매 후에 고객 지원이나 사후 서비스 같은 거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?

2: 고객 지원 사후 서비스.. 현재 뭐 그런 거 그것까지는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불량품이 나온대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교체해 주고

1: 교환 정도 교환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현재 정부나 지자체 대나무 산업 관련 정책적 지원 같은 거 있습니까?

2: 내가 이제 올해 올해 명인이 되어 가지고 이제 뭐야 그 계승자를 이제 발굴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앞전에는 뭐 거의 뭐 그런 보조금이나 기술 같은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.

1: 그럼 보조금 자체가 없다는건가요

2: 보조금 자체가 없어요. 그것은 이제 담양에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담양에서는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다고 해서 또 전라남도에서 또 여기까지 손을 못 비치잖아 지자체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야지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는 모르지 모르고 담양에서 신경써야지 담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

1: 그러면 대나무 산업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체계는 잘 구축돼 있다고 보십니까?

2: 대나무 표준화.. 하도 이게 가짓수가 많아 가지고 가짓수가 많아 가지고 좀 아무래도 손으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가공해서 만드는 거라. 나름대로 제품은 딱딱 규격화가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도 제품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제 포장지 그런 것들 그냥 너무 가짓수가 많아가지고..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의 그냥 뭐 비닐이 비닐을 비닐 비닐 포장 그런 것 밖에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.

1: 그러면 데이터 대나무 관련 산업 정보나 데이터 접근성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?

2: 대나무 자원 확보나 그런 어려움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만드는 데 너무 이렇게 몸을 쓰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죠.

그러면 육체적으로

1: 그러면 데이터 접근성 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은 딱히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?

2: 물건이 하도 만들면 다 잘 나가는 물건들이라 뭐 별로 특별히 나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.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양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길랑가는 모르겠지만은

1: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다른 대나무 만드는 분들의 정보 이런 거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

2: 그런게 이제 또 없고

1: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나무 산업 분야에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?

2: 전문 인력.. 근데 이제 이 일을 이렇게 힘들고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

게 누가 이제 좀 배워서 좀 가르칠 사람이 없지. 해야 되는데

1: 아 힘들고 어려워서 돈도 안되니까 신규가 참여하지 않는거죠 새로운 인력이

2: 그렇죠 만일 돈만 된다면 그냥 할 사람이 많이 나타나겠죠

1: 현장 실무자들을 위해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이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

2: 여기 우리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거기서 좀 답변하기가 그래. 동생하고 둘이만 하니까 사람이 여러 사람이 많이 있다면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좀 뭐야 보건 서비스도 좀 잘 좀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떻게 답변하기가 그러네.

1: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인력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이 대나무 산업 분야에 들어오고 싶다 했을 때 어떤 교육이나 지원 정책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2: 이제 아무래도 뭐 좀 지원이 돼야 되겠죠.

1: 그러면 지원금 같은 제도

2: 그렇죠 지원금 같은 제도가 필요한데.. 지금 담양군에서도 이렇게 계승자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.

담양군에서 박물관에서 계승자 교육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는데. 이제 담양군 아니고도 담양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지

1: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은 없고 담양군에서만

2: 지금 군에서만 양성을 하고 있죠

1: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2: 담양군에서 많은 인력이 부족하죠. 이제 만약에 계속 계승, 발전되려면 개인도 이렇게 누구 이렇게 와서 배우고 하는 사람 있으면 좋겠죠.

1: 아무래도 군에서 하는거는 소수에게만 배우다보니까.

2: 거의 다 받아준다고는 해요. 근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담양군에서도 많이 하고싶은데 지원자가 없는지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

1: 대나무 육림 기술 및 가공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?

2: 가공 기술? 가공..제 수준을 .. 말을 꼭..

1: 꼭 여기 뿐만 아니라 그냥 담양이든 우리나라 전체든 이런 대나무 산업에서

2: 그렇게 저기한다면은 이 담양 대한민국 대나무 가공 수준이다 하면은 담양만치 잘한 데가 없죠.

엄청나지 수준은. 뭐 사실 그 대나무 가공하는 거는 뭐 여기서 뭐 대나무 수입 합판 그런 거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원자재도 없을뿐더러 인건비도 비싸고. 그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.

1: 그러면 가공할 수 있는 기술 자체는 있으나 원자재나 비용이 비싸서

2: 그리고 이제 인력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 거지.

다 되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. 그거 후진국에서 만드는 대나무 가공을 못 하겠어 다 하지.

사실은 그 정도는 후진국에서 만드는 거야.

먼지가 하도 많고 그냥 일이 힘들니까 오히려 그 대나무가 많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그 기피할 건데 사람들이. 그러겠죠?

산에 대나무가 많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이 이제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. 그래가지고 노동 일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합판 만들 수 있어도 안 한다고

1: 네 그러면 이런 실제로 대나무 발을 재배하거나 이런 관리하는 그런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?

2: 지금 이제 만드는 사람이 없어서 예전에는 정말 대가 금이다 그랬어요.

아주 금 그렇게 비쌌어

1: 혹시 몇년 전쯤입니까?

2: 한 80년 70년대

1: 네

2: 이제 막 소쿠리 같은 거 바구니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나가니까 이 담양군 사람들이 거의 다 그걸로 이렇게 업으로 해 가지고 먹고 살았으니까. 그때는 대나무 값이 아주 금값이었지 지금은 그때는 이제 관리가 관리도 잘 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돈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지

대나무 발에 가면 대나무가 거의 뭐 썩어가지고 있지 썩어가지고

1: 전만큼 대나무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서..

2: 활성화가 되지 않고. 없어 가는 지금 없어지는 추세여. 대나무 발이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인구도 실은 없어진 것보다도 이제 인구도 이제 시골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산은 빈 땅으로만 남아 있으니까 대나무는 뿌리가 계속 형성이 돼서 더 대나무 발을 일궈요.

1: 네 이동

2: 일구는데 이제 제품은 질이 떨어지지.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채소 가꾸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보살펴주고 해야 이 대나무가 하늘로 쭉쭉 올라가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키가 작아지는 거예요.

그러면서 면적은 넓어지지 이제. 그 자꾸 이제 다른 땅에 이제 대뿌리가 이제 침범을 하니까 1년에 대뿌리가 1m 가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

1: 그러면 제품 다변화를 위해 연구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

2: 연구개발은 지금 이제 대나무 가지고 뭐 인테리어 같은 거 막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. 아까 처음에 말했듯 이제 곰팡이나 좀 먹는 좀벌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실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.

그들도 지금 꾸준히 지금 연구는 하고 있는데

1: 그러면 이어서 새롭게 개발되거나 시도 중인 제품 분야가 있습니까?

2: 이제 시도 중에 있는 제품들은 이제 우리 이제 일상생활 일상 속에서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주방용품이랄까 뭐 가구랄까 애들 장난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직은 막 현실적으로 그냥 딱 되지를 아직은 앎으니까 그러고 지금 있는 상황이죠.

1: 그럼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는게 어떤점 때문 입니까.

2: 인력이 없어서 안되는거죠

1: 하고자 하는 의향은 있으나 인력이 없어서 만들지를 못하는거예요?

2: 그렇죠

1: 그러면 이런 기술 개발 같은 데 있어서 어떤 지원이나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

2: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계... 좀 기계로 가공하는 기술? 기계가 이제 필요하지. 너무 손으로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사람이 이제 힘들어진 거지

1: 손으로만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런 지원 같은 거가 기계 쪽으로 필요하단 말씀이시죠

2: 될 수 있으면 좀 기계로도 좀 사용할 수 있게. 손으로만 이렇게 막 사포질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니까 이제 좀 기계로 좀 하면 조금 힘이 좀 덜 드니까 어깨가 좀 빠질 것 같아 가지고

1: 그럼 이런 지원도 있지만 혹시 다른 분야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?

2: 다른 분야와 협력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죠. 아무래도 융복합으로 해서

1: 그렇다면 혹시 어느분야

2: 뭐 가구쪽이라던가

1: 가구 산업쪽

2: 그렇죠

1: 대나무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?

2: 우리는 가공만 하는 대나무 생산만 하는 사람이라 그 대나무의 어떤 저기에서는 대나무 원자재는 신경을 못 쓰고 있죠.

1: 혹시 원자재를 받아와서 가공을 하시는 겁니까?

2: 그렇죠

1: 그럼 그 원자재를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? 안정적으로 그럴 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

2: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력을 하고 하고 있지는 않죠.

우리가 이제 좋은 제품만 골라서 산다는 그런

1: 그러면 중간 도매상을 통해서 그냥 좋은 대나무를..

2: 그렇죠 골라서 이제 가져오는거지 어차피 우리는 가공만 하니까 만들기만 하니까 이제 원자재를 이제 대나무 밭에서 이제 뭐냐 이렇게 가꾸고 어찌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중간 상인들이 이제 뭐 해야 된단가 그러겠지 그렇지 앎으면 이제 대밭을 갖고 있는 개인이 한단가 우리는 생산만 하는 사람이니까

1: 생산 및 가공에 필요한 기계 설비나 도입 기계나 설비 도입 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?

2: 기계 설비 도입? 아무래도 잘되냐 안되냐 그게 문제겠죠

1: 기계 작동이 잘되냐 안되냐요?

2: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보면 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

도 있고 그러니까. 다 했다고 그래서 딱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실험 과정을 이제 해서 이제 와야 되겠지 이제 그런 것들은

1: 그럼 잘 되나 안 되나 전에 새로운 기계를 가져와야 하지 않습니까?

그런 새로운 기계를 가져오..

2: 실험 시험을 해야지 그거 만드는데서 협력해가지고

1: 실제 그 제품 기계 만드는 공장에서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

2: 기계만드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과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야지

1: 아까 인력 부족 말씀하셨는데 인력 조달 측면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개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2: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을 못 하겠네

1: 애초에 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개선을 하는데 없으니까?

2: 사양산업이다보니까 누가 와야..

1: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2: 앞으로도 계속 이제 신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많이 판매하는 것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죠.

1: 신제품 개발 쪽인 거죠. 혹시 여기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만드십니까

2: 우리는 가구도 만든 가구 이제 약간의 좀 큰 가구는 아니고 소가구 하고 이제 뭐 애들 장난감 주방용품 그런 걸 만들고 있죠.

저기 있는 거 저런 게 제품 저런 거 다 이런 것도 대나무로 대나무 저기를 해서 지금 유행하는 저 뭐야 그 핸드폰 스피커

이렇게 꽃아가지고

이런식으로 지금 물건을 연구를 하고 있고

1: 이게 판매중인건 아니고 시제품인가요?

2: 판매도 해요 이제 개발해가지고 나왔어